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 없다

목포시, 대부분 日·中·동남아 관광지 집중

보고서 제출 형식적·1년에 두번 가기도

목포시 공무원 해외연수가 관광에 치우치거나 한 사람이 1년에 두 차례나 연수에 나서는 등 내실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1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723명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했다. 또 1999년 이후부터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로 매년 7천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배낭여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지난 해에는 194명의 공무원들이 4억1천502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으며 올해는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 7천500만원을 포함해 배낭여행 1억7천만원 등 4억4천500만원을 해외여행경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진지 견학이란 명분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해외여행이 대부분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지

집중돼 외유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외여행을 마치고 난 뒤의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이어서 막대한 예산지출에 비해 연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한 해 두차례 이상 해외에 나가는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생 공직자로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다수 해외연수의 경우 귀국후 보고회를 갖는 등 해외여행에서 느낀 바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관광지로 더 유명한 특정지역을 무더기로 방문해서는 소기의 연수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실내에 산업도자 전시관 도자 골뚝.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실내에 산업도자 전시관 도자 골뚝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목포시 깃바위에 국내 최초 전문도자 전시관으로 문을 연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은 최근 내부 시설과 전시품 등을 보완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권 출·퇴근 직원 주소 이전 등 목포市, 인구 유입정책 추진

지역교육발전 계획도

목포시는 도청이전과 대불산단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 등 목포권 유망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남악·육암 신도시 지구에 주민이주 시작되고 대불산단 분양율 증가 등으로 고용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목포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 놓을 예정이다.

목포시는 우선 단계적으로 오는 3월까지 광주권 출·퇴근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목포로 거주지를 옮길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육 목적으로 타지역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 확대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 등 서남권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목포발전 비전 2020계획'에 중·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목포인구는 지난 1월말 현재 24만 2천855명(외국인 포함)으로 2006년 12월과 비교, 할당세 100명이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30~60대의 생산연령층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중기 산업디자인 지원 성과

상품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목포시가 중소벤처기업의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와 대불대학교 디자인 혁신센터는 지난 2005년 기계산업디자인 지원사업 등 8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산·학·연 협동사업을 구성, 브랜드 네이밍과

장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혁신개발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실시했던 '산학연 컨소시엄 산업디자인 혁신개발사업' 최종 평가결과 참여업체 8개사 모두 새롭게 제작된 기업 CI로 기업과 제품의 개선된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외장등록 등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로 매출 증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오는 11월 개항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무안공항. 무안군은 개항 전 활주로 연장 등 시설확충을 위해 올해 용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무안공항 11월에 비행기 뜬다

관제탑·계류장·터미널 등 공정률 88% 활주로 연장위해 용지매입비 30억 확보

오는 11월 문을 여는 무안공항 마무리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천 56억원이 투입되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제탑,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안군은 개항 초 안정적인 항공수요 확보와 공항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지원, 모객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의 조례 제정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계절별 전세노선 개발 등 정기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공항 주변 항공물류단지 조성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물류 관련 기업 사업설명회와 한국복합운송협회를 통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물류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 금융,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홍보를 위해 전남도, 무안군 및 유관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홍보, 인근 시·군 지자체 관광 홍보물에 무안국제공항 접근 방법 표시 등 공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무안군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항 전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중앙 부처에 건의해 활주로 연장 등 시설확충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올해 용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시청 홈페이지 통해

영상 시정뉴스 보세요

목포시가 '영상 시정뉴스'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관광 목포'의 이미지와 생생한 시청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 시정뉴스를 제작, 지난 1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mokpo.c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시정뉴스는 10분짜리 DVD 영상물로 15일 동안의 주요 시정소식, 의정소식, 시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으로 제작된다.

시는 이 시정뉴스를 15일 간격으로 업데이트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내 전광판이나 서남권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때도 홍보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하천·도로변 대청소

무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최근 전 공무원과 주민 등 3천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요 하천과 도로 등지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 19t의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 332-776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양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무안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화하지 않는 편인침, 소리없는 편인침

이제 시몬스침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OPEN

시몬스침대, 매트리스, 베개, 이불, 소파, 의자, 테이블, 조명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판매합니다.

문의: 062-262-2278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인생의 맛은 새로운 맛**

아외 결혼식 가능 (부부)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단체주문)

문의: (062) 262-2278